



# 화물연대 SPC 전면 파업 정당하다

## 처우 개선 합의 이행하고 해고 철회하라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9월 16일, 제빵제과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 SPC가 광주 공장(샤니)의 화물 노동자 40명을 해고했다.

이 노동자들은 9월 초부터 사측의 합의 번복에 항의해 파업을 해 왔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대리점에 배송을 해야 하지만 차량과 인원은 그대로인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다.”(화물연대)

사측은 증차를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어 버렸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손해배상 청구를 협박하더니, 급기야 계약 해지까지 강행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광주에서 해고된 동료들에 대한 연대 투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요구가 걸린 “나의 투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증차를 해 주고, 먹고살 만큼은 해 줘야지.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고 (광주에서) 계약 해지까지 하는 걸 봐요. 이건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광주(노동자들)가 당하면 우리도 당합니다. 이건 동조 파업이 아니라 내 파업이에요.”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

스, 던킨도너츠, 삼립(샤니), 파스쿠찌, 셰이크쉐 등 40여 브랜드를 가진 대형 식품기업이다.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육가공, 제분, 물류 등 분야에서 5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중국·미국·프랑스·베트남·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매장 400여 곳을 운영한다.

그룹 측은 2010년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모델이었던 회장 허영인의 성공 신화를 내세우지만, 회사를 이렇게 일군 주역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파리바게뜨의 성공 신화” 아래 가려진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렸다. 하루 노동시간이

15~16시간씩 되고, 운송료(임금) 인상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못 미치고,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일합니다. 그동안 점포가 많이 늘었고, 골목골목 다 배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송료(임금)는 찢끔 올랐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도 수백만 원씩 드는데, 그게 다 빚입니다.”

“간선차(대형 수송차)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내일은 오후 1시에 출근했다가, 모레는 새벽 1시에 출근하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는 식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자고 일어나 또 바로 일을 나갑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친구도 없고 가정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SPC그룹도 프렌차이즈 등 부문에서 수익이 줄었다. 그럼에도 글로벌 매출은 6조 5000억 원이나 됐다. 지금도 사측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늘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측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여념이 없다. SPC그룹이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려고 야비하게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한 이간질도 시도하고 있다. 조건 개선을 약속했으면, 그에 따른 부담은 사측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을 핑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SPC 사측은 그레 놓고는 이번 파업이 “노노 갈등”으로 인한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노조들의 이권 다툼에 가맹점들만 피해 보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측과 언론들의 이런 비난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그동안 SPC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합의 이행을 외면하고, 민주노조 탈퇴를 회유·협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PC그룹 산하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탄압에 처해 있다. 최근 화물연대본부와 파리바게뜨 지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SPC 사측의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따라서 이런 터무니없는 왜곡과 비난에 맞서 열악한 처우 개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우파 언론은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경찰은 이미 SPC 사측의 든든한 경비대 구실을 하고 있다. 각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잔뜩 실은 대체수송차량이 나올 때마다 무장한 경찰 병력이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9월 19일 현재 노동자 46명이 연행됐다. 심지어 조합원 한 명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맞아 피가 흐르는 채로 구급차에 실려 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도 입었다.

그러나 대체수송 저지, 물류 봉쇄, 도로 점거 등은 화물연대가 파업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노조 설립 초기부터 사용해 온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이를 불법이라고 비난하지만,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싸웠을 때 운송을 마비시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신생 노조인 화물연대 SPC지회 노동자들이 이런 전통을 따르는 것은 정당하고 옳다.

## 노동자 투쟁 탄압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최근 정부가 노동자 운동을 본격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수백명을 투입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전파 주범으로 몰아 탄압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파 언론들이 앞장서 택배노조의 정당한 쟁의 활동을 “갑질”이라 비난하며 마녀사냥을 해대고 있다.

경제 ·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

이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고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화물연대 SPC지회 전면 파업에 대한 경찰 탄압이나 언론들의 비난 공세도 이런 노동자 운동 탄압의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 탄압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둔 것과 SPC 사측이 우리를 탄압하는 것은

같은 문제입니다. 정권이 임기 말에 친자본 기조로 나가니까 SPC그룹도 저렇게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정부라고 해서 뭐가 좀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사용자 편만 듭니다.”

정권 막바지에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 탄압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385호 주요기사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 신청: 02-777-2792, wspaper.org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TV 유튜브 채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제국주의, 기  
후 변화, 노동운동, 차별 등 주요 쟁점들과  
국내외 정치 현안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에서 살펴 보는 영상과 음원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TV 채널 바로가기  
youtube.com/c/노동자연대TV